

두근두근 뛰는 가슴
상기될 얼굴과 떨리는 몸

낮선 길을 떠나기 전 느끼는 가벼운 흥분과 긴장은
곧 만나게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 때문일 거예요.

비난받지 않고도 성폭력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치유를 넘어 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
마음껏 상상을 펼쳐낼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으로 함께 떠나요!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나를 마주하러 가는 길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 할게요.

함께 걷고 또 걷고, 뛰고 또 뛰다보면
어느새 우린 자유롭고 신나고 살맛나는 세상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본 상담소는 1991년 개소해서 약 60,000여 회의 상담·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성주의에 기반하여 성폭력 실태를 알리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활동,
성차별적 성문화 바꾸기 운동 등을 통해 여성의 인권 회복,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여성운동단체입니다.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큰 울림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작은 말하기'

두런두런 쑥덕쑥덕 왁자지껄 화기애애
'작은 말하기'는 나 자신을 만나는 것이자
경험과 경험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작은 말하기'는
말하기가 가진 '치유'와 '운동'의 의미를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새로운 장입니다.
서로의 호흡과 기운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느끼면서
때로는 분노, 슬픔, 혼란 등 다양한 감정을 분출하고
때로는 성폭력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가하며
때로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 대해 유쾌한 반격을 구상하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말하기의 공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작은 말하기'는 당신이 만들어 나가는 운동입니다.
당신도 '작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말하기'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일시 _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늦은 7시 (4월-11월)

장소 _ 카페 "사이에" (합정역 근처)

문의 _ 02-338-2890

커뮤니티 _ cafe.daum.net/small-but-big-talk

참가신청 _ 커뮤니티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ksvrc@chol.com로 접수

후원 _  여성부  복권위원회



작은 말하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밤길은 나의 것!

6회 밤길되찾기시위

밤길은 나의 것!

분노를 터트리고! 공포를 타파하라!

성폭력은 여성들이 밤길을 다니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 규범과 문화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여자가 밤늦게 어딜”

“여자가 밤늦게 다니니 그런 일을 당하지” 라며

부당한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여성들의 몸과 밤길에 대한 권리를 통제하고 제약하고 있지요.

밤길되찾기시위는 우리사회의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폭력에 대한 잘못된 책임전가 속에서

여성의 일상이 얼마나 통제되어왔는지를 알리며,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권리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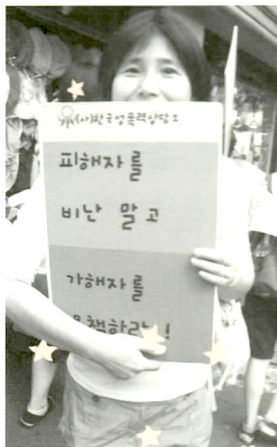
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에 문제제기하고

여성에게 안전한 밤길을 만들기 위해

당신의 열정과 힘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여름밤, 여성들의 에너지로 가득한 달빛아래 모여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트리고 공포를 날려버리자구요!



일시 _ 2009년 7월 17일(금) 저녁 6시 30분

장소 _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홈페이지 _ www.dalbeat.net

문의 _ 02-338-2890

“Speakout in Chorus”

6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생존자’라는 이름을 마주하게 된 경험을 나누는 순간,
그 곳은 아주 특별한 힘을 지닌 치유의 장이 됩니다.

나의 말과 공명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힘을 새롭게 확인하게 합니다.

그 공명을 좀 더 다양한 빗깔의 울림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의 ‘생존’을 음악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글쓰기로 나의 경험을 풀어내고 그 경험에 선율을 붙이고
나의 몸으로 표현해보는 작업을 함께 하며
그 울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Program

- 경험을 나누는 글쓰기 워크숍
- 몸으로 표현하는 즉흥 워크숍
- 콘서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말하기대회 준비 및 연습
- 6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일 시 _ 2009년 8월-10월 ‘말하기참여자 사전 워크숍’
2009년 11월 ‘6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세부 일정과 장소는 추후 공지합니다.)

참가신청 _ 2009년 7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홈페이지 _ <http://www.sisters.or.kr/speakout>

문의 _ 02-338-2890, speak_out@naver.com

후원 _  한국여성재단



실전처럼 연습하고 연습처럼 대응하라!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은?

성폭력 발생 이후에 그 해결을 고민하기보다,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몸과 마음을 훈련합니다.
성공적으로 내 몸을 방어하고,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몸과 상대를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
발차기와 주먹 지르기, 고함치기와 쏘아보기를 연습하며
피해 상황에서의 재빠른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지요.
여성주의 자기방어의 즐거움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답답하고 좁은 '여성다움'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두근두근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전처럼 연습하고, 연습처럼 대응하라!

여자는 원래 몸이 약하고 싸움을 못한다?
Nonono~ 싸움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한거죠!
실제와 똑같은 공격 상황을 연출하고
그 상황에 대처법을 훈련합니다.
격렬한 몸 훈련과 상대와의 겨루기를 통해
몸도 마음도 커져가고, 공포는 용기로 변해갑니다.
어두운 밤길의 공포, 실전 같은 연습으로 날려버려요!



일시 _ 2009년 8월 - 9월

대상 _ 성폭력 공포 타파를 원하는 14세 이상의 여성 누구나

문의 _ 02-338-2890

후원 _  국가인권위원회



쑥쑥 자라는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교실

마음을 활짝 열고 나와 당신,
세상을 바라봐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감수성교실은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성교육이 학내 성폭력 예방과
아이들의 올바른 성 인식 형성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권감수성교실은 생물학적 생식기 중심의 지식 전달을 넘어,
'인권과 관계'를 중심으로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한
감수성과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인권감수성교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아이들과
성, 폭력, 성별 규범, 타인과의 관계, 상호 소통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권감수성교실과 함께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은 훌쩍 자라있을 것입니다!

Program

- 1회 오리엔테이션
- 2회 변화하는 몸, 다양한 몸
- 3회 나에게 깃든 남성다움, 여성다움
- 4회 성역할수사대
- 5회 성을 둘러싼 나의 말풍선
- 6회 차별의 색안경 벗기
- 7회 내가 가진 별은 몇 개?
- 8회 성폭력 감수성지수를 올려라
- 9회 공동체로 해결해요
- 10회 인권감수성의 쑥을 틔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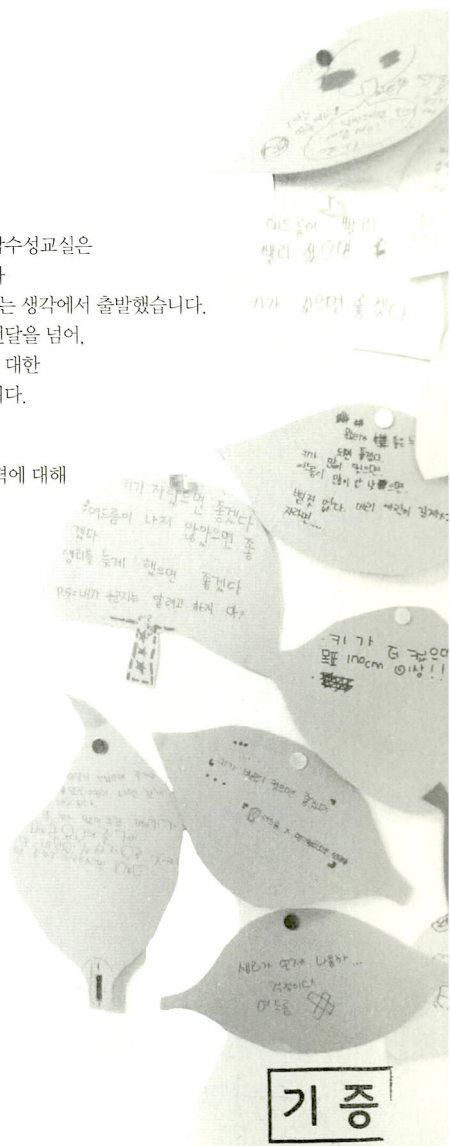
일시 _ 2009년 6월~7월

장소 _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

문의 _ 02-338-2890

후원 _ 문학동네, 서울시 교육청

기증



이리오너라, 벗고 놀자~

욕망 찾기

“자신의 성 정체성을 탐구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우주와 자신을 끝없이 발견해
나가는 것에 다름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_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 중에서



성문화는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일상의 '공간'에서 충분히 자유롭지 않고
주변의 남성들을 경계하며 안전함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긴장이 여성의 몸, 욕망, 관계에 대해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인 나는 내 몸을 돌볼 의무가 있고,
내 욕망을 살필 권리가 있고, 내 몸의 즐거움에 관대해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리오너라, 벗고 놀자~ 욕망 찾기! 에서는, 어떤 욕망을 찾을 것인가, 어떤 욕망에 집중할 것인가 보다
자신의 욕구를 깊이 들여다보고, 질문하고, 해체하고,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리오너라, 벗고 놀자~ 욕망 찾기!는 자신의 욕망을 디자인 하는 나를 만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Program

- 1회 오리엔테이션 / 자기동기 이해하기 / 활동을 통해 친해지기
- 2회 몸 그리기 / 신체 본뜨기
- 3회 소리내기 / 목소리와 동작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 4회 관계라는 이름의 놀이 : 억눌린 욕망에 관한 이야기 / 만다라 그리기
- 5회 성기 만들기 / 명상하며 미라클레이와 놀기
- 6회 욕망지도 그리기 / 자신의 신체 묘사하기
- 7회 장난감놀이 / 나를 표현하기 / 느낌나누기
- 8회 주변의 작은 앨범 만들기 / '나'를 중심으로 재편성
- 9회 평가 및 소감나누기



일시 _ 2009년 7월 - 8월(주1회)

대상 _ 성인여성 누구나

문의 _ 02-338-2890

후원 _ 여성부 복권위원회



꿈꾸는 몸, 춤추는 마음

춤으로 자유로워지고, 리듬으로 삶이 변화하는 춤췌라피 워크숍

무용이라는 말 대신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춤이라는 단어와 자기감정을 표현하고 몸과 마음을 통합한다는 뜻인
췌라피(Therapy)가 만나서 춤췌라피라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타자화된 여성의 긴장된 몸을 이완시키고,
나만의 자유로운 춤과 움직임을 통해, 나의 몸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춤을 추는 여성들만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에서 지금,
리듬에 당신의 몸을 맡겨 보는건 어떨까요?



일시 _ 2009년 9월 - 11월 (주1회) 문의 _ 02-338-2890

대상 _ 성인 여성 누구나 (10명)

후원 _ 여성부 복권위원회

꿈, 신비로운 빛을 향하여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 -꿈dream 췌라피 워크숍

모든 여성들은 변화를 갈망하지만 어느새 '그건 꿈이야'라고 한숨을 내쉽니다.
나 역시 평범한 여성이지요,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돈 많은 파트너는 없을까 속쓰린 농담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그렇듯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성중심사회의 현실적 직업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가고,
여성이 비혼자로 혹은 주부로서 부딪히게 되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시선은 외면하고만 싶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변화라는 것,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남성 또는 소수의 성공한 여성들만의
행복한 사치 아닐까. 하지만 나의 가슴 속에는 늘 이런 물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 꿈은 무엇일까?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머뭇거리던 어제를 뒤로하고, 짐을 싸고 길을 나서봅니다.
변화를 꿈꾸는 그녀들과 2박3일 캠프를 떠나보자구요.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은 내안의 여신들을 찾길,
'맨땅에 헤딩'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일시 _ 2009년 11월 (2박3일) 문의 _ 02-338-2890

대상 _ 성인 여성 누구나 (8명)

후원 _ 여성부 복권위원회



※ 참여자는 Me Story (자기소개서)를 사전에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합니다.